

우리말 한국 영화 할리우드에서도 통했다

'기생충' 골든글로브 수상 쾌거

세계 영화산업 주류 뚫어 해외영화제 30개 상 수상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것은 작품성 하나로 세계 영화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를 뚫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세계 영화산업 주류인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상과 더불어 양대 시상식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함에 따라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봉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할리우드 주류 영화감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 한국제영화제 최고상 황금종려상 수상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세계 최고 권위의 한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그동안 15개 이상 해외영화제에서 수상했고, 영화제 이외에 각종 시상식에서 30여개가 넘는 상을 받았다.

이런 수상 행렬 속에서도 골든글로브 수상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인 할리우드에서 한국 영화가 인정받았다는 데 있다.

윤성은 평론가는 "자본주의가 조장한 계층 간, 계층 내 갈등이라는 '기생충'의 주제 의식과 여러 장르를 혼란시킨 봉준호 감독만의 블랙코미디가 아시아,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공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류 영화산업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할리우드는 세계 영화산업을 이끈다는 자긍심을 앞세워 그동안 비영어권 영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편이었다. 한국 영화 역시 그동안 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각종 영화제와 평단의 인정을 받았지만, 유독 할리우드에서는 홀대받았다.

이번 수상은 한국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호 평론가는 "골든글로브나 아카데미 수상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상업 영화를 만들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수상이 한국 영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수출 및 배급, 해외 합작 등에서 좀 더



봉준호 감독(가운데)과 배우 이정은(왼쪽), 송강호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의 베벌리힐트호텔에서 열린 77회 연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봉준호, 할리우드 주류 감독으로 우뚝

봉 감독 역시 명실상부한 할리우드 주류 감독으로 우뚝 설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데뷔한 봉 감독은 '살인의 추억' (2003), '괴물' (2006) 등으로 작품성과 상업성을 인정받았고, '마더' (2009)를 거쳐 '살국영지' (2013)로 할리우드에 진출하며 활동 무대를 넓혔다. 이어 넷플릭스와 손잡고 '육자' (2017)를 선보였다.

그동안 꾸준히 할리우드 러브콜을 받은 봉 감독이지만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뭉갠' 이 홀짝 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계 관계자는 "칸이나 베를린, 베니스 등 주요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감독이라도 사실 미국에서 작업할 때 명함을 내밀기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할리우드 기준이 되는 골든글로브나 아카데미상 후보에 들어도 배우나 감독의 몸값은 엄청나게 된다"고 전했다.

강유정 평론가는 "중국의 리안 감독도 중국 무협 영화 '와호장룡'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뒤 할리우드 주류 영화감독이 됐다"면서 "봉 감독 역시 앞으로 그 정도로 위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봉 감독의 '기생충'이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를 제치고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것은 할리우드의 세대교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 아카데미 수상 '청신호'

골든글로브 수상을 계기로 아카데미상 수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골든글로브상은 아카데미상 전조전이라 불릴 정도로 아카데미상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생충'은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랐다. 최종 후보작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발표된다. 여러 외신은 '기생충'이 최종 후보 발표에서 외국어상, 감독상, 각본상, 작품상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관측한다.

'기생충'은 골든글로브에서 영화 대사가 전체 5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작품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다. 아카데미상은 골든글로브와 달리 작품상 부문 언어 규정이 없어 작품상 후보로도 유력시되고 있다. 한 외신은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따낼 첫 외국어 영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지금까지 총 30여개 트로피...수상 행진
지금까지 '기생충'이 받은 트로피는 일일이 열

'기생충'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
77회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수상

'기생충' 주요 수상 내역
5월 14일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6월 5일 제66회 시드니 영화제 (최고상)
8월 7일 제72회 로카르노 영화제 (역설관스 어워드 송강호)
9월 19일 제15회 판타스틱 페스트 (관객상)
9월 26일 제38회 밴쿠버 영화제 (관객상)
10월 17일 제43회 상파울루 국제영화제 (관객상)
12월 4일 뉴욕 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
12월 8일 LA 비평가협회 (작품상·감독상·남우조연상 송강호)
필라델피아 비평가협회 (외국어 영화상)
워싱턴DC 비평가협회 (작품상·감독상·외국어 영화상)
12월 14일 시카고 비평가협회 (작품상·감독상·각본상·외국어 영화상)
1월 4일 전미 비평가협회 (작품상·각본상)

감독 봉준호
시각/촬영도 위안지(지병호·FPA)

거하기 힘들 정도다. 지난해 제72회 한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은 그 뒤로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싹쓸이했다. 지난 6월 제66회 시드니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제72회 로카르노 영화제(역설관스 어워드 송강호), 제15회 판타스틱 페스트(관객상), 제38회 밴쿠버 영화제(관객상), 제43회 상파울루 국제영화제(관객상)에서 수상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해외 영화제 이외에 총 30여개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에 수상했다. 전미 비평가협회(외국어 영화상), 뉴욕 비평가협회(외국어 영화상), LA 비평가협회(작품상·감독상·남우조연상 송강호), 필라델피아 비평가협회(외국어 영화상), 워싱턴DC 비평가협회(작품상·감독상·외국어 영화상), 시카고 비평가협회(작품상·감독상·각본상·외국어 영화상) 등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정글의 법칙' 400회 특집 '헝거게임2' 박태환 등 총출동

SBS TV 정글 탐험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은 다음 달 중 400회 특집을 방송한다고 6일 예고했다.

400회 특집은 2014년 100회 특집 '헝거게임'을 잇는 '헝거게임2'로 기획한다. '헝거게임2'는 최후의 개척지로 불리는 아름다운 섬 팔라완에서 펼쳐진다.

마린보이 박태환, 철인삼총경기로 최고 체력을 자랑하는 선, 1회부터 400회까지 '정글의 법칙' 내레이션을 책임진 윤도현, 정글 베테랑 오종혁과 '자연인' 이승윤, 아이돌 에이스 하니, '여자 김병만' 한보름, 최다 출연자 노우진이 불꽃 튀는 생존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특집은 1회부터 가장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이끈 김진호 PD가 연출한다. /연합뉴스

배우 지현우 밴드 결성 10일 미니앨범 발매



배우 지현우가 4인조 밴드를 결성하고 9년 만에 가요계에 돌아온다.

소속사 STX라이언하트는 그가 결성한 4인조 밴드 '사거리 그옴빠'가 오는 10일 첫 번째 미니앨범 '뉴스(NEWS)'를 발매한다고 6일 밝혔다.

'사거리 그옴빠(사진)'는 보컬과 기타를 맡은 지현우와 밴드 넥스트의 키보디스트 윤채(건반), 지현우가 활동한 밴드 더 냇츠 초창기 멤버 김현중(베이스), 그리고 기타 및 퍼커션의 사에 4명으로 구성됐다.

지현우는 지난 2001년부터 약 10년간 밴드 더 냇츠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솔로 앨범 '크레센도'(Crescendo)를 발매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5 맛 좀 살래요
9	30 KBS 뉴스특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10 특집 SBS 뉴스
10	00 중계방송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재)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육탄필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포구만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고향건문록 스페셜-사적인 여행 50 특목 보혈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55 닥터 365
2	10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빠샤 매카DS 30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00 방학특집 베이비소크 다이어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	5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11	35 UHD 숨터 40 바다 건너 사랑	10 슬기로운 어린이 생활	10 PD수첩	0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자 다큐멘터리(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영상앨범 산재	05 100분 토론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EBS1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이미	18:00 꾸러기 천사들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8:30 최고대 호기심 딱지
07:45 페파 피그	14:45 물랑	19:00 스파이더맨
08:00 덩동덩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카 폴리(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타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발걸음마다 새로운, 유커탄 반도
09:30 윈드볼츠	16:10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축제의 나날들>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	16:40 덩동덩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맛나다, 겨울 주전부리 2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겨울밤이 맛있어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1:50 EBS 다크프라이미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2:45 건축탐구 - 집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마샤와 곰(재)	23:35 미래교육 플러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7일(음 12월 13일 己酉) ☎ 010-9790-8237

36년생 숙단한다면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니라. 48년생 확실한 번벌력이 절실하다. 60년생 변수가 매우 크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 두자. 72년생 흑과 백만을 구분하려 하지 말고 회색도 있음을 알라. 84년생 서행하면 득이로다. 96년생 기만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허탕을 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하다. 행운의 숫자 : 27, 32

37년생 보편적 가치가 기준이 될 것이다. 49년생 한 번 아닌 것은 그 어떠한 바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라. 61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일관되게 진행하자. 73년생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오판할 수 있다. 85년생 수고로움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며 대응 하자. 97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면역력이 생겨서 관장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3, 21

38년생 불완전하다면 백 번이고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 50년생 본의 아닌 연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62년생 누락된 모순이 병폐로 드러나리라. 74년생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6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만 한다. 98년생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0, 78

39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리라. 51년생 강함과 유연함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라. 63년생 자발적이라면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리라. 75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면하겠다. 87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자. 99년생 행운의 기운이 길게 이어져 있다. 행운의 숫자 : 01, 72

40년생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기회를 갖는다. 52년생 행운이 들어오고 있다. 64년생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길사로 연결시킬 수 있다. 76년생 잘 선택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어 있느니라. 88년생 마음에 통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00년생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왜곡 되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0, 94

41년생 주의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3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불이다. 65년생 여러 가지 결과물이 생겼으나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77년생 핵심 내용에 부실함이 보인다. 89년생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곳에 문제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01년생 차선책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60

42년생 마음먹은 대로 해나가지 지장이 없었다. 54년생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66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천이 될 것이다. 78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환되는 성공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90년생 지켜보고만 있을 정황이 아니라 직접 뛰어 들어가야 한다. 02년생 음양의 기운이 교체하는 시기이니 신중을 거듭하라. 행운의 숫자 : 38, 98

31년생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43년생 전전공공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을 알라. 55년생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야 하느니라. 67년생 여행을 삼가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79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91년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내리라. 행운의 숫자 : 75, 91

32년생 잠시 오름세를 보이다가 소강상태에 빠지는 형태이다. 44년생 너무 쉬워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다. 56년생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68년생 백 번의 구상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80년생 이루어지리라. 92년생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9, 14

33년생 재물운이 나이지고 있으니 수확할 준비를 하라. 45년생 실제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57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 질 수도 있다. 69년생 목은 것을 털어 버리고 신선함을 시도하자. 81년생 순조롭다고 인식할 때 병역을 만나기 쉽다. 93년생 금석지킴에 취한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63

34년생 한 번 결정된 것은 번복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46년생 액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58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 되리라. 70년생 지속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82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94년생 부드러운 어감의 표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9, 80

35년생 이상 징후가 보이니 지체 없이 종합 점검하라. 47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59년생 진위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71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목전의 현실에만 집중하자. 83년생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95년생 흔들리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행운의 숫자 : 34, 52